

##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양심

윤 태인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터졌다기보다는 이전부터 무너졌어야 할 독의 틈을 할머니의 손가락으로 간신히 메우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빠지자마자 균열이 거대해진 것이다.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던 논밭은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땅을 두고 큰 고모와 둘째 고모, 독일에 살고 계시는 막내 고모까지 한소리를 내기 시작하셨다.

“시골 땅 나눠야지. 난 도장 못 찍어줘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우리 집에서 5년 넘게 모시는 동안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연락조차 우리 집에서 먼저 해야 간신히 받던 둘째 고모가 장례식이 끝나고 건넌 첫마디였다. 땅이 뭔지, 명이가 뭔지 전혀 관심 없던 스무 살 무렵의 나는 어린 마음에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땅이 어떻게 될지 보다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할머니가 중얼거리시던 게 생각나서였다.

“나 좀 데려가라...나 좀 데려가라...”

는 할머니의 독백이, 딸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도 없는 며느리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금쪽같은 손주들 고생시키고 있다는 당신의 죄책감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였다. 서른이 되기 전 남편을 잃고, 동네 큰 양반집 고명딸에서 자식 넷을 건사하는 농사꾼이 되기까지의 고단한 삶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는 옛말은 무심하게도 할머니에게 해당되는 거였는지,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 후 10여 년 만에 생때같은 자식 둘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신과 너무도 닮아가는 며느리의 삶이 안타까운 마음에 할머니의 며느리 사랑은 남달랐고, 주변에서도 며느리만큼은 나라님 부럽지 않게 잘 뉘었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할 정도였다. 치매에 걸리셔서 먹을 것을 이것저것 숨겨두던 그 가물거리는 순간에서조차 며느리가 들어오면 숨긴 음식을 쥐어주곤 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시골에 있는 땅은 며느리에게 물려주어야 할 마지막 재산이었고 자식들을 키워낸 젖줄이자 한평생을 몸 바쳐 지켜낸 당신의 자존심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땅을 떠나면 타지로, 심지어 타국으로까지 떠나서 길게는 몇 십 년을 찾아오지도 않던 딸들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뻔 했던 땅 나누기는 할머니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하나 뿐인 올케의 삶을 또한 걱정했던 큰 고모의 정리로 일단락되었다. 할머니는 당연히 며느리와 아빠 없이 잘 자라준 손주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으니 그게 맞다고, 그 논밭에 대해서 앞으로 한마디라도 더 나온다면, 할머니의 뜻으로 매년 보내던 쌀 세 가마니까지 다신 못 받게 될 줄 알라고 큰 고모가 으름장을 놓으셨더니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둘째 고모도 기세를 접고 쌀은 꼬박꼬박 보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입을 다му셨다.

엄마의 완강한 뜻으로 명이는 오빠와 내 앞으로 분배되었다. 언젠가 결국은 명이가 바뀔 거고 그때 상속세라든지 하는 세금도 복잡하고 굳이 당신의 명의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셨다. 그렇게 땅은 서울에 있는 오빠와 내 소유가 되었으나, 문제는 논밭의 운용이었다.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시골에 사시는 친척아저씨께 농사를 맡겼는데 명의를 바꾸고 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아빠와 어릴 적 형, 아우하면서 지내시던 면장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였다.

“나중에 논 팔고 하려면 자식들이 농사짓는 걸로 서류를 해서 직불제를 받아요. 형수 혼자 사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큰 돈 쓸 일 생기지 않겠수. 직불제 신청해두면 지원금도 일 년에 얼마씩 나오고, 몇 년 농사짓다가 파는 걸로 하면 양도세도 면제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도 서울에 살던 집이 재개발로 분담금을 크게 내야 할 상황이었

고, 오빠의 결혼식도 앞둔 상황이라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할 상황이던 엄마에겐 솔깃한 얘기였다. 큰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했던가. 그 와중에 난 갑작스런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엄마는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궁지에 몰려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시긴 하셨지만, 그 외에 평생 법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던 엄마에게 시골 면장님의 '도움'은 선악과와도 같은 달콤한 이야기였을 테다.

“그래도 그거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다들 아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정 걱정되면 나중에 양도세 이득 얻는 셈 치고 도지하는 사람한테 직불제는 좀 떼어주고 확인 나오면 주말마다 와서 짓는다고 말 맞춰 달라 하면 되지.”

면장님의 말씀으로는 많이들 그렇게 한다는 거였다. 구석진 시골에 남은 사람은 노인네들뿐이고 결국 자식들에게 갈 논밭이니, 미리 자식들이 농사 짓는 걸로 해두고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방식이라 농촌 사람들은 꽤 쓸쓸하게 쓰고 있는 듯싶었다.

얘기를 들은 엄마와 난 각자의 고민에 빠졌다. 엄마는 '지금 취업준비를 하며 아프기까지 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을 더 보태줄 수 있다면'하는 마음이셨고, 난 엄마한테 생활비를 보태드리지도 못하는 현재의 삶이 속상해서 엄마에게 소소한 수입이 되었으면 했다.

우리의 깊어지는 고민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고 엄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면 법의 시야를 피해가는 지원과 세금에 대해 엄마는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으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재개발 공사는 가차 없이 시작되었고 이주금을 나눠 오빠는 신혼집으로, 엄마와 난 지하셋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하나 뿐인 아들, 그리고 남편 없이 키워낸 장남의 신혼집만은 늘 번듯하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주금의 거의 전부가 오빠의 결혼자금으로 쓰이게 되었고 우리 공사가 끝날 때까지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아마 그때였을 거다. 엄마는 결국 남들이 다 한다는 그 직불제, 우리가 농사짓는 걸로 해두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나 또한 엄마의 뜻에 따르기로 생

각했고, 바로 또 다른 명의자인 오빠에게 몇 년 조심하면서 잘 지내다가 땅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 쓰자고 얘기해두려던 바로 그 날이었다.

“엄마, 이제 할머니 될 거예요. 축하드려요. 넌 이제 고모다, 고모.”

새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오빠의 전화였다. 얼떨떨하면서도 첫 손주를 얻게 되었다는 행복에 가득 찬 엄마는, 그때 마치 할머니가 정신 차리라고 불호령을 내리시는 기분이었다고 하셨다. 재물로 땡땡거리는 울창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는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쪽 같은 할머니였다. 그런 할머니를 존경했고 사랑했던 엄마는 어긋난 생각과 결심을 한 자체를 부끄러워하셨다. 오빠에게 직불제를 신청하자고 권하려던 우리는 그런 고민은 했었다고 말했고, 다시는 편하게 옳은 길 아닌 길로 돌아서 갈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엄마는 행여나 할머니가 힘들게 지켜내신 땅 바르지 못하게 쓸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당부해두셨다.

오빠는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면서 그동안 엄마가 짊어온 가장의 무게를 절실하게 느낀다고 했다. 엄마가 고민하신 것 또한 결국 엄마 당신이 부유한 삶 누리려는 게 아니라 자식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던 거 다 안다며, 엄마 걱정하지 않게 남부럽지 않은 가정 꾸려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의 고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난, 순간의 판단으로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릴 뻔한 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앞으로의 삶에서 두고두고 반면교사의 일로 기억해두겠다 다짐했다.

옳은 길은 가끔 깊은 골짜기도 있고 비바람도 몰아치면서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할 거냐고 사람을 시험한다. 그에 반해 바르지 못한 길은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듯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훨씬 수월해 보일 때가 있다.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떳떳할 것인지 아닌지, 부귀영화를 얻은 후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결정인 것이다. 그때의 고민과 결정으로 인해 엄마는 손주들에게 당당하고 인자한 할머니가 되셨고 난 조카들의 눈을 바라보며 정직을 설명할 수 있는 고모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오빠는 내집마련대출을 받아 신나게 뛰노는 두 아들을 위해 아파트 1층의 집주인이 되었다. 엄마는 정 힘들면 시골 땅을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도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지켜낸 땅인데 그런 사연 많은 땅은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애깃거리 들려주면서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의 우리가 그 땅으로 인해 마음 든든하게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큰 힘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 오빠를 뿌듯해하시며 엄마는 가끔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소리 내서 말씀하시곤 한다.

“어머니, 그래도 며느리복이랑 손주복은 있으시지요?”